

『韓国語教育研究』(第12号)別刷

ISSN 2186-2044

【研究論文】

일본 내 대학의 한국 대중문화 교육 방안 연구

方 閏濟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22年9月

일본 내 대학의 한국 대중문화 교육 방안 연구

方 閔濟

本研究は、日本国内の大学における韓国大衆文化教育の現状を調査し、その必要性を高めると共に、韓国大衆文化の授業の方向性について考察した。日本国内で高まっている韓国大衆文化への関心度や波及力に比べ、まだ本格的に行われていない状況である。そこで本研究では、韓国言語文化専攻の学生たちを対象に、韓国大衆文化教育に対する認識調査を行なった。その結果、言語授業内で韓国大衆文化コンテンツを活用することが期待効果に及ばないことが分かった。そしてこのような大衆文化教育に対する一つの代案として、映画の『タクシー運転手』(2017)を活用した独立的な韓国大衆文化授業モデルを提示した。今後、韓国大衆文化コンテンツに対する教育的価値を再照明し、文化内容中心の教育に対する研究がさらに必要だろう。

1. 서론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는 이제 일본 사회에서 한류가 하나의 신드롬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 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미디어·게임·출판·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과 국가 이미지 상승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한국 대중문화가 가진 교육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실제 일본 내 대학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활용 현황을 진단하여 효과적인 교육적 방법론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대중문화 작품 안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일상 언어 표현들이 있으며, 작품 내에서 한국의 여러 시대상과 문화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또한 대중문화 작품은 일반 대중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으며, 평소 좋아하는 연예인을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교육적 활용 가치에 주목하여 최근 한국어 교육학계에서는 대중문화를 활용한 언어/문화의 통합형 수업의 필요성과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논의들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

이미혜(2005)¹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대중문화 교육의 현황을 언급하면서 언어 중심의 대중문화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언어 수업과는 별개의 대중문화 수업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중문화를 활용한 언어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김경숙라혜민(2011)², 성은주엄나영(2012)³은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과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한국 문화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환경이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대중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논문으로는 윤석임(2006)⁴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 일본 내 한국어 교재의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 영화를 활용한 통합형 언어 수업 모형을 소개하였다. 김훈태(2013)⁵는 드라마와 가요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목적과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대중문화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언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이 연구들은 대중문화를 언어 교육에 활용하여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한편, 문화 전공 연구자들은 언어와 문화를 분리한 독립적인 문화 수업으로서 대중문화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전하나(2019)⁶와 오지혜·권미경(2021)⁷는 대중문화교육을 언어 교육에 종속된 형태가 아닌 대중문화의 내용과 언어를 분리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막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중문화의 교육적 가치가 재조명됨에 따라 대중문화에 대한 학문적 기대를 언어 수업에 종속된 형태의 대중문화 교육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대중문화 교육의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첫 걸음으로 일본 내 대학의 한국 대중문화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여 대중문화 콘텐츠의 교육적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중문화 내용중심의 교육적 시도로서 영화 <택시운전사>(2017)⁸를 활용한 문화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¹ 이미혜(2005),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모형 설계」, 『한국언어문화학』 2-1, pp.185-206

² 김경숙라혜민(2011),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59, pp.473-496

³ 성은주엄나영(2012),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학습이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어문화학』 82, pp.501-539

⁴ 윤석임(2006), 「한국대중문화를 응용한 한국어 교육의 일 방안-일본의 비전공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20, p.435-455

⁵ 김훈태(2013),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에서의 한국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4-2, pp.131-155

⁶ 전하나(2019),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국 대중문화 교육의 실태와 방향성 연구」, 『문화와 융합』 41-6, pp.669-704

⁷ 오지혜·권미경(2021),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대중문화 교육의 방향: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7-1, pp.131-153

⁸ 장훈의 영화 「택시운전사」는 2017년 8월 2일에 개봉하여 최종관객수 12,189,698명(역대 박스오피스 15위)을

2. 일본 내 대학의 한국 대중문화 교육

2.1 일본 내 대학의 한국 대중문화 교육 현황

조선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현황조사 분과회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 내 한국어 전공 코스가 설치된 대학은 16개교인데, 그 가운데 전공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한국 문화가 포함된 한국 학 과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1. <전공 과정> 한국학 과목의 분야별 내역

| 과목 구분 | 사회과학 | | | | 인문과학 | | | | 개론 | 교직 | 세미나 | 계 |
|-------|------|--------|-----|-------|------|----|----|----|----|----|-----|-----|
| | 경제학 | 국제 관계론 | 정치학 | 사회 문화 | 언어학 | 문학 | 역사 | 사상 | | | | |
| 과목 수 | 1 | 7 | 9 | 39 | 16 | 24 | 20 | 1 | 19 | 1 | 57 | 194 |
| | 56 | | | | 61 | | | | | | | |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경제학, 국제관계론, 정치학, 사회문화 관련 수업이,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언어학, 문학, 역사, 사상 등과 관련된 수업이 개설되었으며, 개론, 교직, 세미나 등에서도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수업에서는 필요에 따라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참고자료로써 일부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필자가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실러버스를 조사한 결과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자체를 수업의 주 텍스트로 삼아 가르치는 학교는 3곳(+1)¹⁰이었다.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영향력과 인기에 비해 대학 내에서 학문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한국 문화 교육을 언어교육에서 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적·도구적 관점에서만 주로 다뤄온 기존의 교육적 환경을 들 수 있다.¹¹ 일본 내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교수자의 전공분야와 담당하는 수업이 일치하지 않는

기록하였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제 38 회 청룡영화상 5 관왕(남우주연상, 한국영화최다관객상, 최우수작품상, 음악상), 제 54 회 대중상영화제 2 관왕(기획상, 최우수작품상), 제 25 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영화 작품상 등 다수의 영화제와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영화진흥위원회 공식 통계, 2021년 10월 2일 기준)

(<https://www.kobis.or.kr/kobis/business/mast/movie/searchMovieList.do>)

⁹ 조선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현황조사 분과회, 「한국어 교육 현황 중간 보고서」, 『韓語教育學會第84回例會』 2020년 6월 14일 p20

¹⁰ 해당 학교는 東京外國語大學(과목명: 「大衆文化を通して読む韓国現代史」), 神田外國語大學(과목명: 「韓国映像文化論」 I), 帝塚山學院大學(과목명: 「専門基礎演習」)이다. 조선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현황조사에서 전공코스가 있는 학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이지만 검색을 통해 獨協大學의 (과목명: 「韓国特殊研究(韓国メディア論)」)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대중문화 수업이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조사결과의 추이를 볼 때 그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¹¹ 김종수(2013), 「한국교육문화론의 연구사 비판 한국 문화교육론의 성찰적 이해와 새로운 방법 모색을 위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교수자의 전문영역에 따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수 요목의 설계와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특히 언어 수업 내에서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와 문화의 소개를 위한 보조적 자료로만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며,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할 때 작품 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다. 문화 수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중문화 작품의 스토리나 예술적 가치 보다는 대중문화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한국 사회나 문화적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설계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중문화 교육을 위한 교재의 부재이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인기에 따라 한류의 요인이나 각 콘텐츠를 소개한 서적들은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학으로서 한국 대중문화를 다룬 서적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교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 서적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대중문화 콘텐츠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은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외적 요인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꼽을 수 있을 수 있다. 대중문화 작품을 활용한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자체 판권, 작품 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이미지, 배경음악 등 수많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곧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외적 요인이 해결되었더라도 대중문화 콘텐츠의 휘발성이라는 내적 요인 또한 교재 제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창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콘텐츠는 당대의 사회와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시대에 따라 콘텐츠가 가진 사회문화적 의미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새롭고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해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콘텐츠의 변동 가능성 또한 높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대학 내에서 한국 대중문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교수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체계화된 교수 설계를 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국 대중문화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학문 교육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요구된다.

2.2 한국 대중문화 교육 요구 조사

한국 대중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글 설문(Google forms)를 활용하여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설문 조사’¹²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9월 1일~ 2021년 9월 30일까지로 하였다. T대학의 경우 [韓國의社会と文化], [現代韓國事情A/B], [隣国を知ろう(韓国)], [フィールドスタディー즈B(現地文化体験)] 총 4과목의 문화 관련 강의와 2개의 문화전공 재미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제시된 일반 강의에서도 대중문화 콘텐츠

시론, 『우리어문연구』 45, pp.12~16 참조

¹²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이미혜(2005)를 참고하여 수정 및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를 일부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는 있지만, 수업 내용의 독립성이 보장된 재미수업 외에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수업 내에서 주요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요구 조사를 통하여 대중문화 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대중문화 콘텐츠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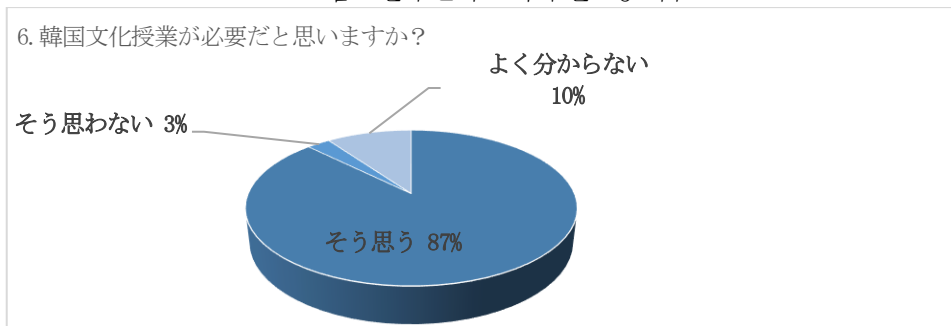
조사 내용으로는 학습자의 개인 사항에 대한 질문, 한국 문화 수업에 관한 의견, 대중문화 교육에 관한 의견 등이 있다. 이 설문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질문과 결과값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T대학의 한국어 전공 코스 학생 1~4학년 총 1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3학년이 40.5%로 가장 높았고, 1학년 31.5%, 2학년 27%, 4학년 0.9%였다. 한국어 학습 기간에 관한 질문에는 3년 이상이 44.1%, 2년 이하 36%, 0~6개월 13.5%, 1년 이하 6.3%로 뒤를 이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3년 이상이 88.3%, 2년 이하 9%, 0~6개월이 1.8%, 1년 이하 0.9%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하기 이전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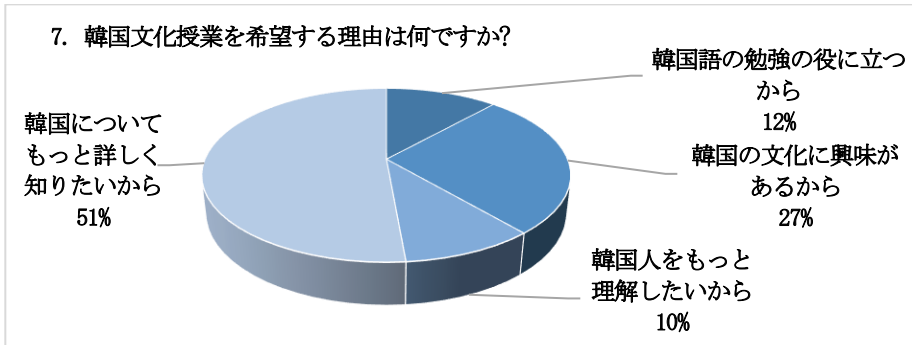
(2) 한국 문화교육의 수요 및 학습 동기

그림1. 한국 문화 교육의 필요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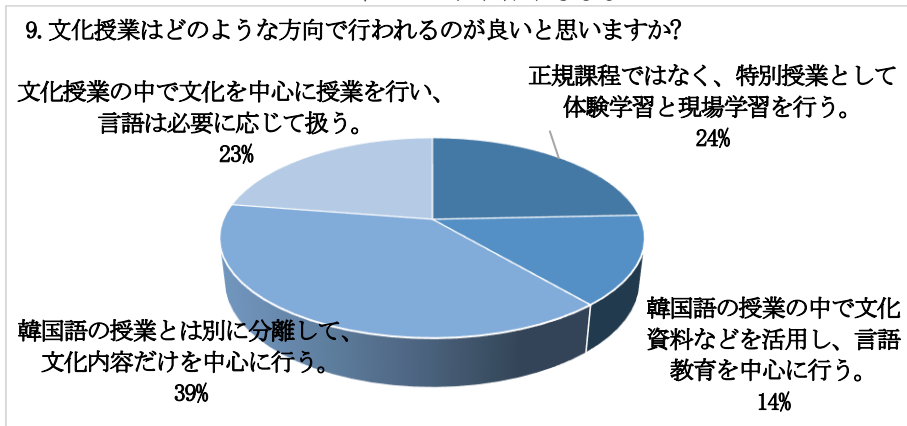
‘한국 문화 수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서는 87.4%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9.9%가 ‘잘 모르겠다’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은 2.7%에 그쳤다.

그림2. 한국 문화 수업을 희망하는 이유



한국 문화 수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1.4%의 학생이 ‘한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문화에 흥미가 있어서’가 27%,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11.7%, ‘한국인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가 9.9%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 학습동기는 언어 능력 향상 보다 한국 문화 학습을 통해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거나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본인의 흥미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문화 수업의 방향성



다음으로 ‘문화 수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한국어 수업과 따로 분리하여 문화 내용 중심으로 진행한다’가 38.7%로 가장 높았으며, ‘정규과정이 아니라 특별 과정으로서 체험학습과 현장학습을 진행한다’가 24.3%, ‘문화 내용 중심으로 진행하되, 언어는 필요에 따라 다룬다’가 22.5%, ‘한국어 수업 내에서 문화 자료를 활용하여, 언어학습 중심으로 진행한다’가 14.4%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까닭은 문화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이 언어 능력 향상이 아닌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 습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강현화(2011)¹³는 문화교육 과정을 ‘언어·문화 연계형 교육과정’과 ‘한국 문화 독립형 교육과정’으로 나누고 있다. ‘언어·문화 연계형 교육과정’은 언어의 기능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언어 숙달도에 따라 문화항목을 선정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언어 수업에서 대중문화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작품 내에서 등장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상의 표현에 대한 연습이나 간단한 담화적 상황 제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문화 작품 자체에 대한 주제 의식이나 사회문화적 내용에 대한 학습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언어 수업에서의 대중문화 작품의 활용 목적은 대중문화 작품의 이해가 아닌 학습자들의 학습동기 유발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문화 독립형 교육과정’은 언어와 문화를 분리하여 가르치므로 이와 같은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더욱이 일본에서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수업이라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나 작품에서 사용되는 언어 난이도 문제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¹⁴ 수업 내에서 다루어지는 작품이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료에는 자막이 있어 학습자가 전체적인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며, 교사가 수업 전체를 일본어로 진행한다면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에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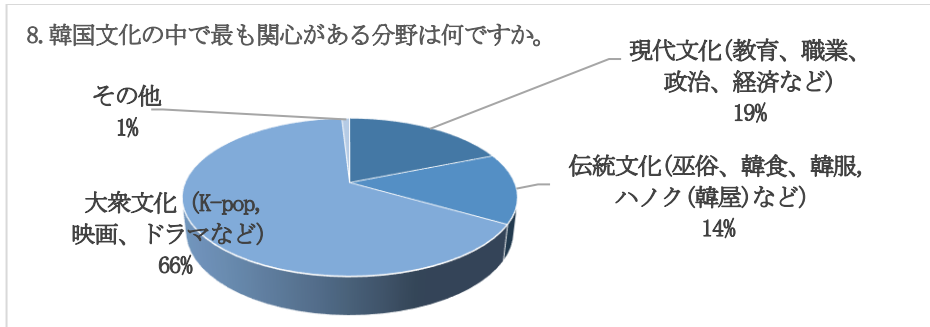
이와 같은 문화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나 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학습자의 모국어가 각기 달라 교수 언어를 한국어로 한정할 수밖에 한국 내 한국어 센터의 경우 ‘언어·문화 연계형 교육과정’을 주로 선택하여 가르치면서 체험 수업을 병행하고,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독립된 형태의 문화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학습자의 모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한국 문화 독립형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상에 별도의 한국 문화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기 때문에, 문화 수업 안에서 가르칠 문화 항목 설정의 기준이나 문화 교재, 교수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¹³ 강현화(2011), 「한국 문화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세종학당학습자를 위한 원형적 교수 요목 개발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3, pp.1-27

¹⁴ 강현화(2011) 앞의 논문, 1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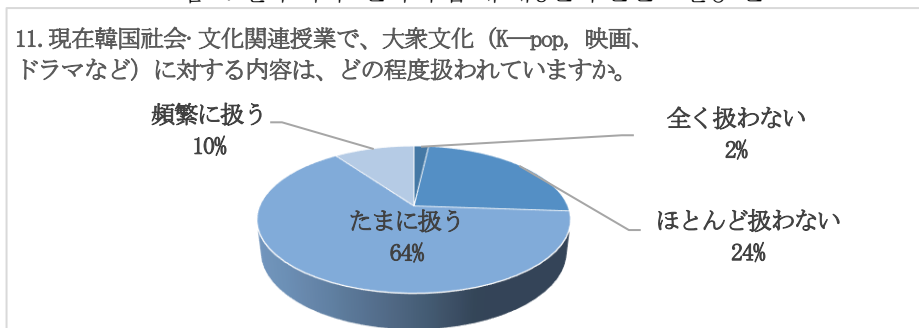
(3)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도 및 수요 조사

그림 4.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도



‘한국 문화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65.8%가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현대문화가 18.9%, 전통문화가 14.4%로 나타났다.¹⁵ 이와 관련하여 ‘만약 한국 대중문화 수업이 개설된다면 수강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97.3%, ‘아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7%로 한국 대중문화 수업에 대한 수강 의사를 내비쳤다.

그림 5. 한국 사회·문화 수업 내 대중문화 콘텐츠 활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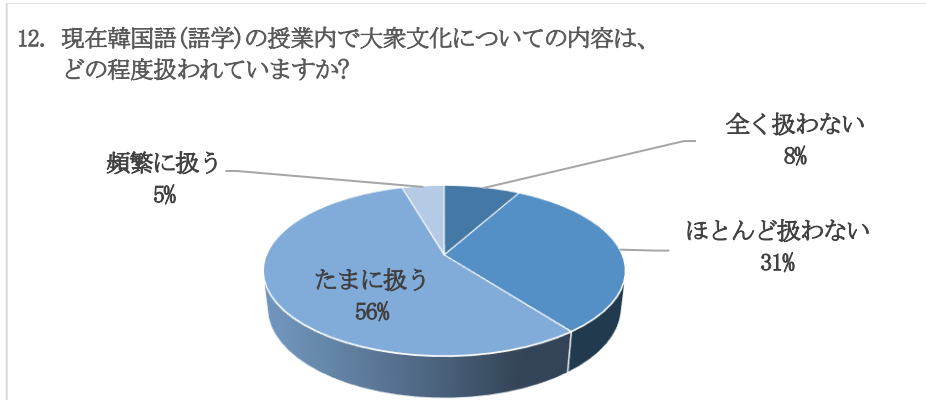


그렇다면 한국사회·문화 관련 수업 안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을까? 우선 T대학에 개설된 ‘한국 사회·문화 관련 수업에서 대중문화의 대한

¹⁵ 일반적으로 한국 대중문화는 한국 현대문화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본 설문에서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목적의 한국 현대문화 수업이 아닌 대중문화 콘텐츠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문화 수업의 개설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 현대문화와 대중문화 영역을 분리하여 학습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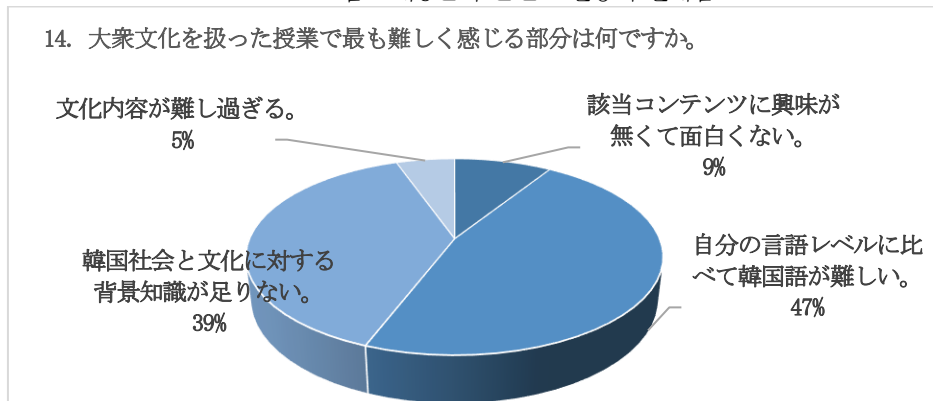
내용은 어느 정도 다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끔 다뤄진다’가 64%로 가장 높았으며,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가 24.3%, ‘자주 다뤄진다’가 9.9%,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가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6. 한국어 수업 내 대중문화 콘텐츠 활용 빈도



한국어 수업의 경우에서도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빈도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끔 다뤄진다’가 55.9%로 가장 높았으며,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가 31.5%,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가 8.1%, ‘자주 다뤄진다’가 4.5%의 순으로 문화 수업의 경우보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활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림7. 대중문화 콘텐츠 활용의 한계점



다음은 ‘대중문화를 다룬 수업에서 가장 어렵게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언어 레벨보다 한국어가 어렵다’고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이 46.8%,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38.7%, '해당 콘텐츠에 흥미 없어 재미가 없다'고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9%, '문화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답한 사람이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2.3 언어 통합형 대중문화 교육의 한계와 교육적 제언

이상의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대중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교육적 수요나 학습 기대는 높은 데 비해 실제 수업 상황에서 대중문화의 활용 빈도가 높지 않으며 언어와 문화 영역 모두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업 내 대중문화 활용이 학습자들의 언어적 숙달도나 문화적 이해도를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수업 내에서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수업에서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유발에 있다.¹⁶ 하지만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대중문화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의 상당수는 작품에 나오는 한국어 표현이 자신의 언어 수준에 비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초급 단계의 언어 수업 내에서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것이 기대효과에 비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초급 레벨의 언어 수업에서는 대중문화 작품 자체를 이해하고 즐기기보다는 작품 안에서 등장하는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나 정제된 언어 표현만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품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나 오락적 기능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실제 작품 안에는 다양한 수준의 어휘나 표현이 등장하고 인물들의 대사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인물들 간의 관계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수자의 충분한 설명과 작품 속의 언어 표현이 등장하는 전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 숙달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들을 초급단계에서 수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교재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내용은 대개 중급 이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¹⁷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대중문화 작품 자체가 언어 학습 목표에 맞춰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의 언어 숙련도나 교수자가 설정한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어휘나 표현 등이 제시된 작품을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언어 항목들을 여러 작품 안에서 추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작품 선정 프로세스는 학습자 지도의 어려움은 교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도 학습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¹⁶ 윤석인(2006), 「한국대중문화를 응용한 한국어 교육의 일 방안:일본의 비전공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日本文(학)연구』 20, p.446

¹⁷ 전하니(2019),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국 대중문화 교육의 실태와 방향성 연구」, 『문화와 융합』 41-6, p.692

설문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대중문화를 다룬 수업에서 느낀 어려움 중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는 답변의 비율도 매우 높다는 것이다. 언어 수업뿐만 아니라 문화 수업에서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출연하거나 흥미로운 서사를 가진 작품을 통해 학습자는 더욱 즐겁게 한국 사회와 문화를 알아갈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습 동기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작품에 따라 대중문화를 통한 문화 교육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가령 오락성만을 추구하여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인기 연예인이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와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심오한 주제를 다룬 작품이라면 오히려 학습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언어 교육에서 언어 항목의 순서와 내용이 중요하듯, 문화 교육에 있어서도 문화 교수요목의 설계는 매우 중요한데, 하나의 작품에서 어떠한 문화적 내용을 다룰 것인지가 작품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중문화 콘텐츠 안에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나 문화적 현상과 쟁점 등을 내포하고 있지만, 서사와 예술성을 갖고 있는 작품으로서 문화사적 평가와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중문화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 콘텐츠는 여러 문화적 요소의 결합체이므로 특정 문화적 요소만을 가지고 작품 전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 안에 담긴 여러 문화적 요소와 그것들의 영향 관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3. 한국 대중문화 교육 모형 실패 - 영화 <택시운전사>

3.1 작품의 선정 기준

한국 대중문화 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를 가르치는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내용 설정과 적절한 작품 선정이다. 수업에서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주된 목적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을 통해 학생들의 한국 사회 현상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지만, 대중문화가 학습 동기 유발이라는 기능적 목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 작품이 갖고 있는 예술성에 대한 평가나 문화사적 의의 등을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 대중문화에 대한 학술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업 안에서 다루어질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

- ① 한국 사회와 문화의 특징적 요소가 담긴 작품
- ② 대중적으로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
- ③ 일본에서 정식 유통되어 자막이 있는 작품

대중문화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융합된 복합체로 매체나 세대에 따라 향유 방식과 문화적 영향력이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에서 모방과 복제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경계를 뛰어 넘어 국가 정체성이 애매한 작품이 창작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대중문화 교육에서는 작품의 개별적 가치에 대해 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교육적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방점을 두고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 가운데서도 학문적 접근이 가능한 예술성과 작품성을 가진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작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훌륭하더라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작품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기 힘들다. 반대로 출연 배우가 유명하거나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작품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업에서 학술적으로 다루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중적으로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내 대학 교양과정으로서 한국 대중문화 교육에서는 한 가지 더 고려할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일본 내에서 정식 유통되고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독립된 문화 수업이므로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와 관계없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유무에 따라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이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 수업 내에서 작품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수업 외의 시간에 작품을 미리 보고 오거나 추후라도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정식 유통되고 있는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한국에서 1,200만명이 넘는 관객수를 동원하는 등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영화로,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내에서는 YouTube와 Netflix, Amazon prime, U-next 등 다양한 OTT서비스에서 제공 중이다.

이 작품은 광주민주화운동 전개 과정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로 현대 한국 사회의 특징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화 <택시운전사>는 앞에서 제시한 한국 대중문화 수업에서 다룰 작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3.2 영화 <택시운전사>의 분석과 대중문화사적 의미

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을 취재한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장르는 드라마로서, 일반적인 역사 허구물 영화나 드라마가 주로 근대화 이전 시대를 다루는 데 비해, 이 택시운전사는 비교적 현대 시기인 80년대

5·18광주민중화운동¹⁸을 영화로 담고 있다. <택시운전사> 이전에도 5·18을 다룬 영화가 다수 있었는데, 5·18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보다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 온 과거의 작품에 비해 한층 대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리얼리티를 재현하는 것에서 점차 '상처의 예술적 표현과 승화로 변하였으며, 영화의 시점 또한 피해자 또는 가해자, 사건과 관계된 주변부 인물들로 다양화되면서 5·18 역사를 더욱 심도 있게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¹⁹

<택시운전사>는 택시기사인 '만섭'과 외국인 기자 '힌즈페터'의 눈으로 1980년 5월 20일~21일 이틀 간의 광주의 참혹한 현장을 그리고 있는데, 이러한 '만섭'의 시점은 1980년 당시 광주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당시의 진실을 외면 혹은 방관해왔던 대중들의 눈을 대변한다. 그리고 외국인 기자 '힌즈페터'라는 실존 인물의 영화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영화의 내용이 실제 역사의 기록으로서 관객들이 받아들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제 당시의 사진 등을 영화에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국가에 의한 폭력과 비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연대와 희생 등을 관객들에게 전달하여, 현재의 민주주의가 우연적 산물이 아닌 피땀 어린 시민들의 연대와 투쟁을 통해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1,2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관람하면서, 5·18광주민중화운동은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이듬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해결로 남아있던 과거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택시운전사>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일차적 목적인 오락적 기능으로서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들의 관심과 결집을 불러일으켜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의 문제를 사회적 현안으로 끌어내고,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대중문화사적 의의를 지닌다.

3.3 영화 <택시운전사>를 활용한 수업 모형²⁰

(1) 준비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배경지식을 점검하고, 한국 민주주의에 관해 확인하고 고민할 수 있는 선행 과제를 수행한다. 우선 영화의 배경이 되는 '5·18광주민중화운동'에 대해 조사, 발표하게 하여 한국 현대사 안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¹⁸ 이하, 5·18

¹⁹ 박재인(2018), 「역사 왜곡에 대한 저항으로서 5.18 영화와 그 사회치유적 힘」, 『문학치료연구』47, pp.257-258 참조

²⁰ 수업 모델과 관련하여서는 이선이(2005)를 참조하여 영화 <택시운전사>(2017)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및 추가하였다.

- ①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과 전개에 대해서 발표하기
- ②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발표하기
- ③ 민주주의에 대한 본인의 생각 써 보기
- ④ 일본에서 5.18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발표하기
- ⑤ 학생의 발표를 듣고 나서 교사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보충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는 미리 지정한 그룹 혹은 개인이 사전에 조사하여 발표를 하게 되는데, 수업 전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등을 웹클래스(webclass) 등의 LMS에 게재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④에 해당하는 활동에서는 일본 내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光州事件'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각의 명칭이 가진 의미상의 차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에 대해 설명한다.

(2) 작품 소개 단계

영화의 줄거리와 대중문화사적 의미를 소개하고, 각 플롯의 주요 내용과 중요한 관찰 포인트를 제시한다.

(3) 작품 분석 단계-질문지 주기

<만섭에 대하여>

- ① 순천의 식당에서 만섭은 주먹밥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 ② 만섭은 왜 재식의 벗겨진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을까?
- ③ 광주에 가기 전과 광주에 도착한 후의 만섭의 심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 ④ 만섭은 왜 힌즈페터 몰래 혼자 서울로 돌아가려 했을까?
- ⑤ 혼자 서울로 돌아가려던 만섭은 왜 힌즈페터를 태우러 다시 광주에 돌아갔을까?
- ⑥ 만섭은 왜 힌즈페터에게 가짜 이름을 가르쳐 줬을까?
- ⑦ 만섭은 왜 힌즈페터를 끝까지 만나지 않았을까?

<힌즈페터에 대하여>

- ① 힌즈페터는 왜 광주로 가려고 할까?
- ② 힌즈페터는 왜 만섭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같이 광주로 갔을까?
- ③ 광주의 참상을 목격한 힌즈페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 ④ 힌즈페터는 왜 만섭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할까?

<재식에 대하여>

- ① 재식은 왜 데모에 참여할까?

<태술에 대하여>

- ① 태술은 왜 만섭을 도왔을까?

<소품이 가진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 ① 딸의 신발과 재식의 신발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 ② 딸의 리본과 과자 리본의 의미는 무엇인가?

<심리적 변화에 대하여>

- ① 5·18을 바라보는 만섭의 심리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② 5·18을 바라보는 힌즈페터의 심리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영화의 시점>

- ① 영화의 주인공으로 광주 시민이 아닌 택시기사인 만섭과 외국인 기자 힌즈페터로 설정한 이유와 그 효과는 무엇일까?

<자국 문화와의 비교>

- ① 정치를 대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국의 역사를 영화를 통해 배울 때의 장단점>

- ① 영화를 통해 역사를 배울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② 자신이 본 한국 역사를 다룬 영화는 무엇이며, 보고 알게 된 것과 느낀 것은 무엇인가?

(4) 영화 감상 및 질문지 완성

등장인물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질문지를 보면서 영화를 감상하고 나서 질문지에 답을 작성한다.

(5) 발표 및 토론

수업 중에 작성한 질문지를 발표하면서 5·18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한일 양국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본 내 한국 대중문화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련의 설문 조사를 통해 언어와 문화에 대한 통합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대중문화 콘텐츠를 보조적·기능적으로만 활용해 온 기존의 교육적 활용 방식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피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 교육은 대중문화 콘텐츠의 내용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작품에 대한 대중문화사적 의의를 규명하고, 작품 내에서 다루어지는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내용을 지식 전달의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 콘텐츠 속에 나타나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양국문화를 고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 교육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대학마다 수업환경과 학습자의 요건 등이 달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향후 한국의 대중문화 교육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고찰하고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재가 개발된다면 현재의 한류 열풍과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화(2011), 「한국 문화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세종학당학습자를 위한 원형적 교수요목 개발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3, pp.1-27
- 김경숙라혜민(2011),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뮤직비디오를 이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59, pp.473-496
- 김중수(2013), 「한국교육문화론의 연구사 비판-한국 문화교육론의 성찰적 이해와 새로운 방법 모색을 위한 시론」, 『우리어문연구』 45, pp.7-25
- 김훈태(2013),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에서의 한국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 -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4-2, pp.131-155
- 박은희(2020), 「교육과정 지식으로서 대중문화에 관한 연구-생산적 소비에서 행위 주체성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5-1, 한국 문화교육학회, pp.118-141
- 박재인(2018), 「역사 왜곡에 대한 저항으로서 5.18 영화와 그 사회치유적 힘」, 『문화치료연구』 47, pp.255-290
- 성은주엄나영(2012),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학습이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어문학』 82, pp.501-539
- 오지혜권미경(2021),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대중문화 교육의 방향: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7-1, pp.131-153

- 윤석임(2006), 「한국대중문화를 응용한 한국어 교육의 일 방안-일본의 비전공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20, p.435-455
- 이다운(2018), 「대중영화의 역사적 사건 재현에 대한 고찰 -〈택시운전사〉,〈1987〉,〈군함도〉를 중심으로」, 『言文研究』 96, pp.281-308
- 이미혜(2005),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모형 설계」, 『한국언어문화학』 2-1, pp.185-206
- 이선이(2005),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한 試論-」, 『언어와 문화』 1-2, pp.97-116
- 전하나(2019),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국 대중문화 교육의 실태와 방향성 연구」, 『문화와 융합』41-6, pp.669-704
- 조선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현황조사 분과회(2020), 「한국어 교육 현황 중간 보고서」, 『韓語教育學會第84回例會』
- 주유신(2017), 「‘기억의 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택시운전사>(2017)와 <1987>(2017)」, 『씨네포럼』 38, pp.107-137
- 최영태(2015), 「5-18 항쟁의 명칭문제-‘광주’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15-3, pp.113-148
- 하세기와 유키코(2006), 「일본에서의 한국언어문화교육 방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자료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pp.187-194

(帝塚山学院大学リベラルアーツ学科)

y-pan@tezuka-gu.co.jp

<부록1_ 설문 내용>

韓国大衆文化教育におけるアンケート調査

本調査は、韓国語学習者の文化授業と大衆文化教育に対する要求調査です。本調査結果は、今後の大衆文化の授業の方向性と可能性を確認し、今後の授業設計に参考に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たこの調査は、研究目的の調査ですので、実際の授業開設には繋がりません。お忙しいところ申し訳ございませんが、調査内容に率直にお答え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全14問)

1. 学年

- ① 1年生 ② 2年生 ③ 3年生 ④ 4年生

2. 韓国語学習期間

- ① 0~6ヶ月 ② 1年以下 ③ 2年以下 ④ 3年以上

3. 韓国文化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てからどのぐらいになりますか。

- ① 0~6ヶ月 ② 1年以下 ③ 2年以下 ④ 3年以上

4. 韓国に留学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 ① ある ② ない

5. 韓国映画、ドラマ、K-popなどをどれくらい視聴していますか？

- ① 全くしない ② 毎週 1~2回 ③ 毎週 3~4回 ④ 毎日

6. 韓国文化授業が必要だと思いますか。

- ① そう思う ② そう思わない ③ よくわからない

7. 韓国文化授業を希望する理由は何ですか？

- ① 韓国語の勉強に役に立つから ② 韓国の文化に興味があるから
③ 韓国人をもっと理解したいから ④ 韓国についてもっと詳しく知りたいから

8. 韓国文化の中で最も関心がある分野は何ですか。

- ① 現代文化(教育、職業、政治、経済など)
② 伝統文化(巫俗、韓食、韓服、ハノク(韓屋)など)

- ③ 大衆文化 (K-pop, 映画、ドラマなど)
- ④ その他

9. 文化授業はどのような方向で行われるのが良いと思いますか?

- ① 正規課程ではなく、特別授業として体験学習と現場学習を行う。
- ② 韓国語の授業の中で文化資料などを活用し、言語教育を中心に進行。
- ③ 韓国語の授業とは別に分離して、文化内容だけを中心に進行。
- ④ 文化授業の中で文化を中心に授業を行い、言語は必要に応じて扱う。

10. もし韓国大衆文化の授業が開設されたら、受講する意思がありますか。

- ① ある ② ない

11. 現在韓国社会 文化関連授業で、大衆文化 (K-pop, 映画、ドラマなど) に対する内容は、どの程度扱われていますか。(方ゼミの授業は大衆文化を対象にしているので、他の文化関連授業を対象に考えながら教えてください。)

- ① 全く扱わない ② ほとんど扱わない ③ たまに扱う ④ 頻繁に扱う

12. 現在韓国語(語学)の授業内で大衆文化についての内容は、どの程度扱われていますか?

- ① 全く扱わない ② ほとんど扱わない ③ たまに扱う ④ 頻繁に扱う

13. 大衆文化を扱った授業で最も難しく感じる部分は何ですか。

- ① 該当コンテンツに興味が無くて面白くない。
- ② 自分の言語レベルに比べて韓国語が難しい。
- ③ 韓国社会と文化に対する背景知識が足りない。
- ④ 文化内容が難しすぎる。

14. 韓国の映画、ドラマ、K-popなどの大衆文化を授業として学ぶ際、最も大事なことは何だと思いますか。

- ① 関連する韓国語(語彙、表現)を学ぶこと
- ② 映画、ドラマ、歌の内容を理解すること
- ③ 韓国文化に興味を持ち、楽しむこと
- ④ 自分の国の文化と比較すること

<부록2_ 설문 결과>

<https://docs.google.com/forms/d/1uOSDqSRvxG3tWL2C6pXSobejoM6sPVMWCqKp7ybbVb4/edit#responses>

韓国語教育研究 (第12号)

2022年9月15日 発行

発行者 文 嬉眞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匂康裕 研究室気付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文慶喆、李相穆、柳朱燕、金珉秀、
金昌九、權恩熙

印刷所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